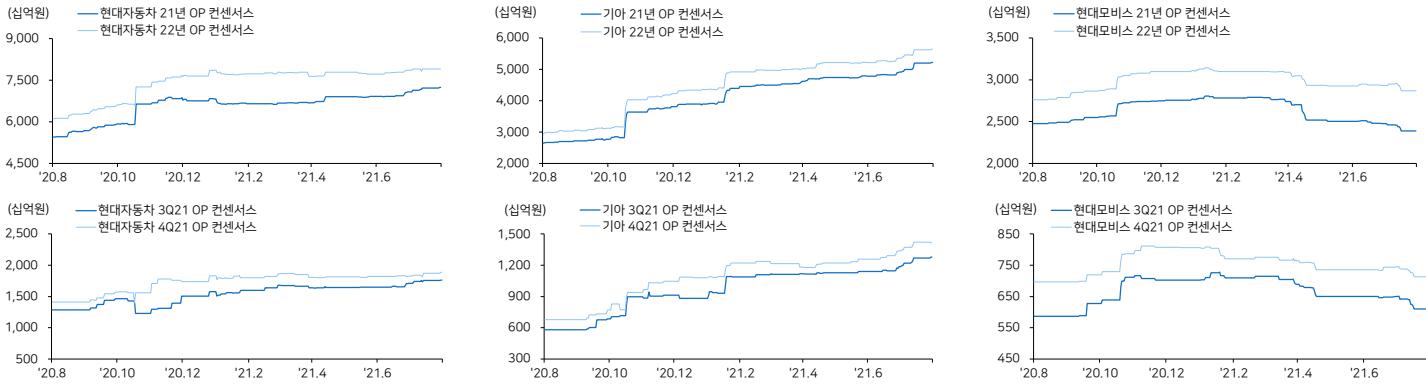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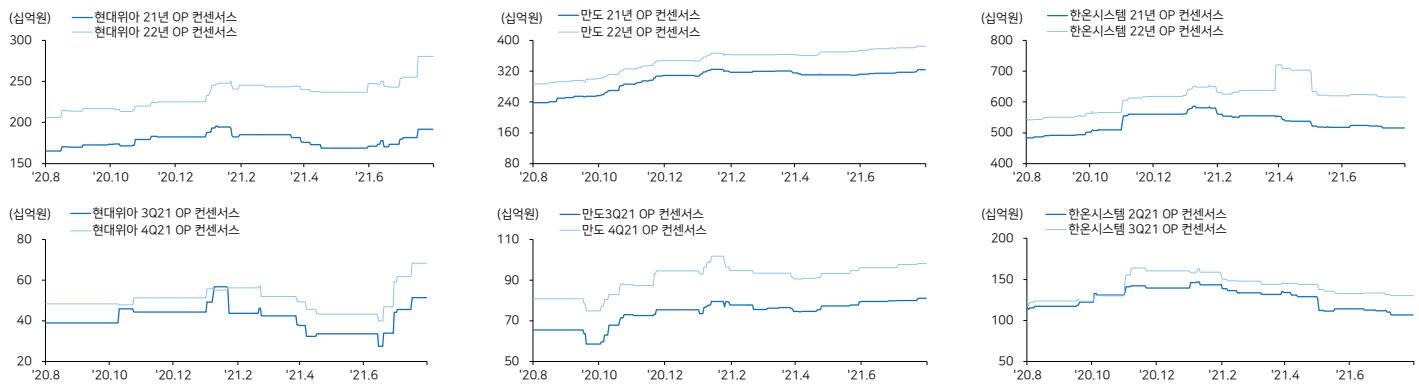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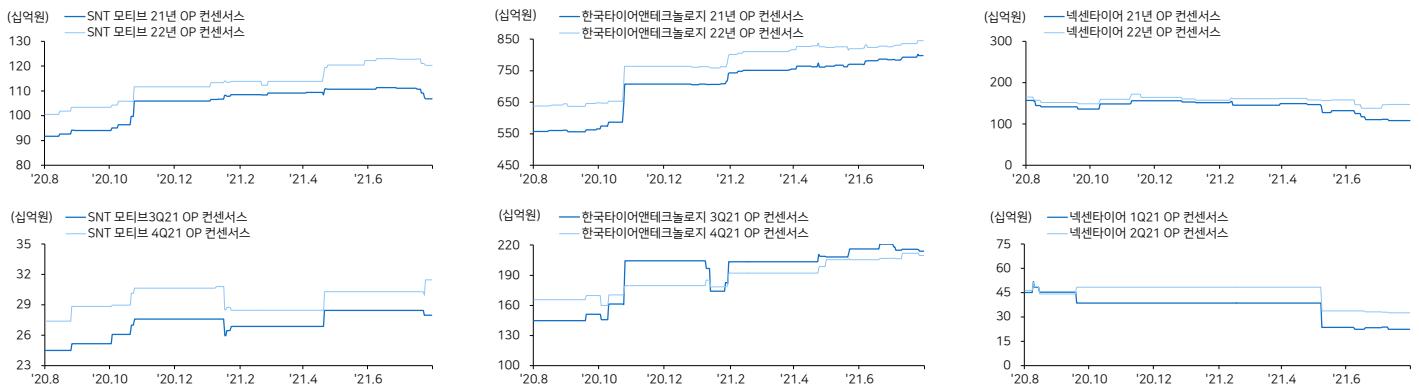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아이오닉 5,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에서도 통했다 (한국경제)

글로벌 전기차 격전지로 꼽히는 노르웨이에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판매량이 4위를 차지, 이곳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으면 유럽 다른 지역으로도 판매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노르웨이에서 EV 판매 경쟁 중.
<https://bit.ly/2Ab1bv>

무주공산'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잡아라...印尼 전기차 비중 0.48% (THE GURU)

인니 전기차 판매 비중은 0.48% 수준으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현대차 전기차 생산공장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Co17kB>

마스크 폐신' 바이든 '2030년 신차 절반 전기차로 팔아라' (매일경제)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전기차, PHEV,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2030년 미국 판매 신차의 절반을 점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비중은 2%에 불과, 이를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
<https://bit.ly/2VBa8W5>

월컴, 9000억원 웃돈 없어 자율주행기술 업체 인수전 가세 (아시아경제)

앞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자율주행 SW업체 바이오니어를 38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월컴이 인수 입찰에 46억 달러를 제안하여 인수전에 뛰어들. 계약 파기 비용을 웃도는 인수가를 월컴이 써냈기 때문에 월컴 입찰 가능성이 높음.
<https://bit.ly/3y3xCuZ>

잘나가는 GV70도 등판...현대차 2.5만명이 '구독증' (서울경제)

현대차그룹 산하 3개 브랜드 구독서비스 가입자 수는 6월 기준 약 2.5만 명에 달함. 올해 인기 차종이 투입되며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 24시간부터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차종을 경험하고 싶은 수요를 충족.
<https://bit.ly/3xxzGJ>

제네시스 아심작, 3주 만에 일냈다...벤츠·포르쉐보다 인기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아심작 'G80 전기차'가 7월 말 기준 누적 계약대수 2000대를 넘어서며 국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음, 반도체 품귀현상이 완화되며 이달부터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xAQGai>

뉴욕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허가...'모빌ай' 승인 받아 (THE GURU)

미국 교통부(DOT)가 '교통지도'으로 운영 높은 뉴욕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뉴욕 시장이 새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검토 중.
<https://bit.ly/3s3TbzW>

바이두, 자율주행 버스 '아풀로2' 공개 (ZDNet Korea)

중국 바이두가 기업 및 기관용 순환버스로 공급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미니 버스 아풀로 2를 공개. 세계 최초로 55인 치 투명 디스플레이 차창을 적용, 주행 중 뒷을 보면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됨.
<https://bit.ly/2Xahck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